

김용익 kim-yongik

1947년 생 born in 1947

서울생 born in seoul /서울에서 활동 working in seoul

1975년 홍익대학교, 서울, 한국 1975 hongik univ. seoul , korea

1980 홍익대학교 대학원 , 서울, 한국 1980 hongik graduate school . seoul, Korea

개인전 one man shows

1978 갤러리 手 ,동경, 일본 gallery te, Tokyo, japan

1993 인공 갤러리, 서울, 한국 inkong gallery, seoul, korea

2000 (공공미술 전시, 양평 프로젝트/프로젝트) 국립민속박물관 광장, 서울, 한국 public art show at the square of national folk museum, seoul, korea

주요 기획전 selected group shows

1977 한국 현대미술의 단면전 the facet of korean contemporary art, Tokyo, japan

1996 two-one man show 아르스 폴로나 갤러리, 바르샤바, 폴란드 two-one man show Warszawa, poland

1988 한국 현대회화 70년대의 흐름 워커힐 미술관, 서울, 한국 korean modern painting in the 70's ,walker hill art museum, seoul, korea

2000 공장 미술제 이천아트센터 이천 art factory 2000 ihcheon art center, ihcheon

2002 한국미술 44개의 퍼즐(평론가가 만난 22개의 퍼즐) 갤러리, 라 메르, 서울, 한국 22artist show curated by 5 critics, gallery la mer, seoul, korea.

이 메일 주소 e-mail address

pfyongik@chollian.net

출품작 캡션

제목 : 쇄석의 고고학

크기 및 수량 : 높이 1.5m 폭 3-4m 정도의 돌 무더기 5개 및 돌탑들 (현장 사정에 따라 유동적) 현장 제작 (폐선부지에 영구설치)

비평문

....우리 현대미술의 대표적 모더니스트 김용익의 양평 프로젝트는 이러한 모더니즘의 공과에 대한 차분한 사유에서 시작된다. 그는 모더니즘이 선사한 미술의 자주라는 가치를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삶의 가치로 확인하고 확장하려는 미술적 도전을 감행한다. 미술의 쓰임새에 대한 차분한 사유와 2년여의 준비를 거친 김용익의 실험과 도전은 미술과 삶의 연대를 우리 사회 우리문화의 정식 의제로 제안 하려는 의지로 읽혀진다. 프로젝트의 개념은 작가가 제안하고자 하는 공공미술의 특성을 정확히 포착하고있다. 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듯한 기념비성을 배제한다.(non-monumental) ② 영원 불변할 듯 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다 철수된다.(temporary) ③ 설치와 철수에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며 철수후 벽돌들은 재활용 된다.(recycling) ④ 모든 발생 비용을 최소화한다 (sustainable)는 작가의 프로젝트 운영 철학은 영웅주의적 입장에서 제작되는 순수미술의

제작방식을 전복시키며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되어왔던 ‘과괴’와 ‘강요’ 등 미학적 형
포를 재개념화시켜 미술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새로운미학을 제시한다.

글쓴이 : 박삼철 (아트 컨설팅 서울 소장)

출전 : 2000. 8.3- 8.22 에 국립 민속 박물관앞 광장에서 열렸던 김용익의 공공미술 ‘양평
프로젝트/프로젝트’ 캐탈로그 서문 중에서 발췌